
서 평

www.kci.go.kr

해상 실크로드와 ‘아시아 세계’의 형성

[서평] 권오영(2019), 『해상 실크로드와 동아시아 고대국가』,
세창출판사, 308쪽.

고 일 흥*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을 알리고 아시아 인문지식의 대중화를 위해 기획된 「Asia+시리즈」에서 네 번째로 출간된 『해상 실크로드와 동아시아 고대국가』는 매우 시의적절한 책이다. 전 지구적 연결망을 통해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생존을 위해서는 ‘연결’이 아닌 ‘고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세계는 수많은 네트워크들의 복잡한 얽힘과 중첩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폐쇄적 고립주의로는 이번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 지금 요구되는 것은 ‘연결된 세계’에서의 소통과 협력만이 인류를 도울 수 있다는 메시지이고, 역사학은 과거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응할 수 있다.

연결된 세계가 인류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실크로드’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실크로드를 통해 다양한 사상과 기술혁신들이 동서로 전파되었고, 그 결과 세계 각지의 문명은 한층 더 풍부해졌다. 그런데 1980년대 NHK에서 제작된 ‘실크로드’ 다큐멘터리의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파급력이 대단했던 관계로, 그 시리즈에서 다루어졌던 (소위 ‘초원길’과 ‘오아시스길’로 불리는) 실�크로드의 육상 교역 네트워크들에 관심이 편중되었다. 그리하여 이 육상 구간들에 연구가 집중되었고, 한국에서도 육상 실�크로드 담론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방면에서 일어났다. 일례로, 경상북도는 실�크로드가 경주까지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실�크로드 지도의 제작을 지원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은 높이 평가할 만하며, 경주에서 실�크로드 관련 유물들이 발견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크로드 연구가 경주를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서해안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어 온 다양한 실�크로드 관련 자료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것을 유통시킨 실�크로드의 해상 교역 네트워크 역시 담론에서 소외되었다. 그나마 최근 들어 국내 연구자들도 ‘해상 실�크로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기존의 편중된 시각이 바로잡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상 실�크로드와 동아시아 고대국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해상 실�크로드와 동아시아 고대국가』는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장과 맺음말을 제외한 본론은 성격이 다른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 ‘고대 해상 실�크로드의 형성과 항시국가’와 제3장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항시국가들’은 훌륭한 동남아시아 고고학 및 고대사 입문서와도 같다. 물론 지면의 한계로 인해 모든 시대를, 그리고 모든 지역에 대해 동일한 심도로 다루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청동기시대 이후(대략 기원전 500년 이후)의 고고학적 문화와 그 물질적 흔적에 대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영어권의 다양한 성과를 참고하여 이해하기 쉽게 핵심 사항들을 전달하고 있어서 그 활용가치가 높아 보인다. 특히 제3장에서 다룬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일어난 동손문화의 등장과 소멸, 남월국의 성립과 멸망, 그리고 한에 의한 영남구군의 설치 과정은 위만조선이나 낙랑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라면 참고할만 한 유용한 내용이다.

그런데 입문서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 크게 아쉬운 점을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지도의 부실함이다. 본문에서 소개된 문

화나 유적의 위치를 표시하는 간단한 지도가 몇 개는 제시되어 있으나, 그 지도들은 너무 간략하고 형식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지도’라는 매체의 특성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지도의 부실함에 대해서는 책의 저자가 가장 안타까워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중화를 표방하며 「Asia+시리즈」를 기획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산하의 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지도 제작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쓰고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해상 실크로드와 동아시아 고대국가』의 제4장 ‘해상 실크로드와 동북아시아’는 앞에 나온 두 장들에 비해 그 지역적 포커스가 다를 뿐만 아니라, 글의 목적도 다르다. 즉, 제2, 제3장에서는 항시나 동남아시아 고고학·고대사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자 했다면, 제4장의 목적은 ‘해상 교역’이나 ‘항시’ 개념을 활용하여 한반도와 일본의 유적이나 유물에 대한 저자만의 새로운 해석의 제시이다. 가령, 한반도 출토 유리의 화학적 조성의 통시적 변화양상을 단순히 기술적 변화로만 접근하지 않고, 유통망의 변화로 바라본 시도나, 항시의 개념을 확대하여 김해 지역 등을 항시로 해석한 시각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뒤에서도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러한 저자의 시도들은 고대사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고대 한반도의 고고역사자료를 ‘해상 교역’이라는 렌즈를 통해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저자는 교역에 관여했던 장소들과 교역망을 통해 이동되었던 다양한 물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러나 이 교역망의 작동을 가능하게 한 사람과 운송수단에 대한 논의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낙타 한 마리가 지고 가는 무게가 최대 200kg 정도이지만 송나라의 300t 정도 규모의 선박으로는 낙타 600마리가 지고 가는 무게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었다’(p. 256)와 같은 구절이 나오지만, 운송수단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없어서 아쉬움이 상당하다. 또한 ‘당으로 건너가서 활동한 신라인들은 동남아시아로 이주, 정착한 중국인들, 즉 중국계 페라

나칸의 선구 격인 셈이다'(p. 249)와 같은 구절을 읽으면서 앞서 나왔던 '페리나칸은 말레이어로서 "현지에서 태어난 아이"란 뜻이지만 곧 다양한 종족적 기원을 지닌 사람을 부르는 말로 바뀌었다'(p. 40)와 같은 구절을 떠올리며, 그렇다면 당으로 건너간 신라인들도 중국의 재지 주민들과 활발하게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남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해상 실크로드와 동아시아 고대국가』는 많은 생각거리를 주는 좋은 책임이 분명하다. 특히 필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책을 높이 평가한다. 첫째, 일반 독자는 물론, 국내 고고학 및 고대사 연구자들의 관심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남아시아 지역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오늘날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임을 환기시키며, 많은 결혼이주여성의 고향이자 최근 인기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면 바닷길을 따라 작동했던 다양한 인적 및 물적 교류 네트워크의 고리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은 물론, 서아시아 지역에서부터 고대 한반도와 일본으로까지 연결되었음을 알게 된다. 즉, 바다를 배경으로 한 이러한 네트워크들의 상상력이 하나의 '아시아 세계'를 만들었음을, 그리고 그러한 네트워크들의 연속 속에서 아시아의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도 서로 연결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 결과, 고대 푸난이나 랑카수카 등의 역사는 우리가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타자의 역사'로서가 아니라, 바다를 통해 연결된 '아시아 공동체'의 역사로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둘째, 『해상 실크로드와 동아시아 고대국가』를 읽다보면 한국 고대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이 보인다. 우선, 금관가야의 항시국가적 성격에 관한 논의에서는 금관가야의 정치구조를 헤타라키적(heterarchical) 국가, 즉 '동등한 위계를 가진 다양한 권력 중추들이 존재하는 질서'(고일홍 2014: 124)를 통해 운영되는 정체체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 또한,

한반도 출토 고대 유리에 대한 논의에서는 화학 조성에 대한 기술적 내용으로부터 생산지와 유통망이라는 사회-경제적 내용을 이끌어 내면서 소비의 맥락까지 다루다 보니, 고대 유리 제품의 유통을 담당했던 추상적인 ‘교역망’뿐만 아니라, 그러한 유통의 동인이 되었던 소비자의 욕구에 대해서까지 고민하게 된다. 즉, ‘능동적 행위자’(active agent)로서의 ‘개인’에 대한 논의가 한국 고고학 및 고대사 연구에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2019년에는 『해상 실크로드와 동아시아 고대국가』 이외에도 강희정이 엮은 『해상 실크로드와 문명의 교류』라는 책도 출간되었다. 권오영 역시 공동저자로 참여한 후자는 전문서로는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나, 일반 독자가 읽기에는 내용이 다소 어렵고, 장들 간의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에 비해 단독으로 집필된 『해상 실크로드와 동아시아 고대국가』는 전문적인 내용을 균질한 목소리로 쉽게 풀어내고 있어 일반 독자에게는 친숙하게 다가가면서, 한편으로는 430여 개의 미주와 다수의 국문, 영문, 일문, 중문 참고문헌을 제시하여 독자에게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연륜이 깊은 연구자가 단독으로 쓴 대중서의 힘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며, 이러한 단독 대중서들이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논 저】

강희정(2019), 『해상 실크로드와 문명의 교류』, 사회평론아카데미.

고일홍(2014), 「한국 고고학의 고대 국가형성 연구를 위한 일 검토」, 『고고학』 13(1).